

## 교회소식

- ▶ 환영:  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- ▶ 행사:  
02/12/23 (주일): 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- ▶ 감사:  
오늘 친교를 담당해 주신 하효경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- ▶ 특별헌금: 튀르키예(구 터키) 지진참사에 대한 구제헌금 노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2월 19일 주일에 드려진 헌금을 노회에서 튀르키예에 전달하려고 합니다.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▶ 알림:  
◎ 2023년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▶ 합심기도 제목:
 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 2. 조성훈장로님: 주의 일을 감당 하실 수 있는 건강주시옵소서
  3. 조정원권사님: Glendale Adventist 병원에 계십니다. 속히 건강회복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
  4. 김종구집사님: 건강이 완쾌되도록 해 주시옵소서
  5. 김왕증: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,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 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 산모와 아기(축복)가 건강케 하소서
  6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

<b>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</b>	
<b>십일조/주정/주일</b>	천방욱, 천정자, 이 천, 이크리스틴, 이장욱, 이정혜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김종구, 김진경, 이윤정, 김정목, 이노엘
<b>감사헌금</b>	

50권 7호      2023년 2월 12일

# 새 가나안 장로교회

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

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 <b>새 가나안 장로교회</b> 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	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 ☎ (323) 256-7575
<h2 style="margin: 0;">담임목사: 이 천</h2>	
시무장로: 조성훈 이장욱 지휘 및 반주: 김진경	

# 주일 예배

## 교독문 5. 시편8

12:30 PM

인도: 이 천 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91장 (통 91장)	다함께
※성시교독	교독문 5. 시편8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384장 (통 434장)	다함께
대표기도		이장욱장로
오늘의 말씀	히브리서 11:13~16	인도자
찬양		김병권/김명숙집사
설교	선진들의 믿음(5) 아브라함의 믿음(2)	이 천 목사
기도		설교자
헌금		하효경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 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07	02/12/23	이장욱	김병권/김명숙	하효경	하효경집사
08	02/19/23	김병권	이장욱	하효경	
09	02/26/23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
10	03/05/23	하효경	이정혜	김명숙	
11	03/12/23	김명숙	이장욱	하효경	
12	03/19/23	이장욱	김병권/김명숙	하효경	

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

◎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

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

◎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

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

◎ 주께서 배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

◎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

◎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

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

◎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

(다함께)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아멘

성경 말씀: 히브리서 11: 13~16

-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
-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
-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
-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멘